

정읍 역사, 빛으로 깨어나다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 달하루’ 개관...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 탄생

정읍의 역사와 국가유산을 빛과 미디어아트로 풀어낸 복합 전시공간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 달하루'가 지난 6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미디어아트관 개관식을 열고 전시·체험·굿즈를 연계한 국가유산 활용 모델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개관식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윤준병 국회의원, 도·시 의원, 지역 유관기관·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정읍의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팸페라 그룹 '카르티오'와 퓨전국악 팀 '아리안'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관식과 제막식, 전시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1894 달하루'는 국가유산청이 지원한 국비 97억 5000만원과 시비 98억원 등 총 195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는 국가유산에 미디어아트 기술과 체험형 콘텐츠를 접목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시관에는 정읍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자원을 디지털 기술과 현대적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구성됐다. 동화농민혁명, 무성서원, 조선왕조실록 이안, 백제가요 '정읍시' 등 정읍의 핵심 역사 자산을 하나의 서사로 연결해 지역의 정체성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아울러 기획전시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진흥원이 디스트리뷰트와 협업해 제작한 '이음을 위한 공유'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현대적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새로



정읍의 역사와 국가유산을 빛과 미디어아트로 풀어낸 복합 전시공간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 달하루'가 지난 6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운 소통 방식을 제안한다. 전시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기획전시를 통해 관람객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설은 연면적 4134㎡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조성됐다. 1층에는 정읍의 역사와 국가유산을 8개 주제로 구현한 미디어아트 전시공간이 마련됐으며 2층에는 체험형 콘텐츠 공간과 어린이 참여공간, 기획전시실이 들어섰다.

이와 함께 대표 캐릭터 '달뽕이'와 '솜뽕이'

를 활용한 굿즈를 판매하는 '달하루 프렌즈샵'도 운영된다. 아기사랑방과 반려동물사랑방 등 편의시설을 갖춰 다양한 연령층과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꾸며졌다.

이학수 시장은 "1894 달하루는 정읍의 역사와 국가유산을 현재의 언어로 새롭게 풀어낸 공간"이라며 "국가유산과 미디어아트, 체험 콘텐츠를 연계한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4부 '굿패와 전쟁' (26)

어디에서 오는데?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하지만 강용대의 행위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고, 남준의 가족이라 할 수 있는 명희의 부모 동생들이 처참하게 희생되자 남준이 지금껏 학도대에서 활동해왔던 모든 일이 부정되는 기분이었다.

총을 들고 사람을 쏘는 행위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게다가 지금 혼자 남은 명희를 놓아두고 돌아가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가족을 모두 잃어버린 명희를 어떻게 홀로 남겨놓겠는가.

"외할머니에게 가는 건 어떨까?" 남준이 말했다. 남준도 봉림에 참가가 있던 날 고창을 신월리 외갓집으로 피신했었다.

"외할머니한테?" 남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명희의 외가는 부안면 용산리에 있다. 신작로를 따라 걷는 다 해도 50여 리 이상을 걸어가야 한다. 남준도 명희의 외가가 어디인지 알고 있다.

"여기서 너무 멀어." "알아. 하지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잖아."

명희는 머뭇거렸다. 평온한 시절도 아니고 고창 곳곳이 아비규환이나 다름없는 혼란스런 때다. 신작로만 따라 걷는 다 해도 한나절 이상을 걸어야 하는데 하는 도중 아무 일도 없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아니면 우리 외할머니 댁으로 갈래?" 남준의 외가가 있는 고창을 신월리 신동부락도 이곳에서 30여 리 이상 떨어져 있다. 명희는 결정하지 못한 채 망설였다.

"남준이, 너는?" 남준은 명희 눈을 뚫어 쳐다보다가 고개를 앞으로 돌렸다.

"우리, 이제부터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냐?" 명희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남준을 슬쩍 본 뒤에 고개를 숙였고 아무런 대꾸도 내놓지 않았다. 다른 때 같으면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아무렇게 통을 찼을 것이다.

명희는 가족을 모두 잃었다. 험혈단신 사교무친 신세다. 지금 의지할 사람을 꼽는다면 당연히 강남준이다. 남준과는 혼인까지도 결심되어 있던 사이 아닌가.

"너네 외갓집은 좀..." 명희는 남준의 외갓집에 기본 일이 없다. 남준의 외할머니도 당골래라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다.

두 사람은 다시 의논을 했고 결국 명희의 외가인 부안면 신월리 연기부락으로 목적지를 정했다.

두 사람은 산길을 따라 걸었다. 걷고 있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는 봉암산은 곧바로 선운산과 이어져 있어 고창 서부 지역에서는 산세가 가장 험하다. 산에 빨치산들이 은거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산과 산 사이 계곡을 따라 걸어가기로 했다.

봉암산 정상 부근에서 개활지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위 위에서 평상복을 한 사내가 나타났다.

"어디 가는 거야?" 사내는 장총을 들고 있었다. 남준과 명희는 우뚝 멈춰서고 말았다. 등에서 식은땀이 절로 났다. 빨치산이 분명해보였다.

"부안면 용산리에 외갓집에... 가고 있어요." 남준이 용기를 내 말을 했지만 목소리는 떨고 있었다. 사내는 의심 어린 눈으로 남준과 명희를 살폈다. 정보원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경관이 풀어놓은 정보원들이 마을과 산 주변을 다니면서 빨치산의 은거지와 행동반경을 염탐하고 있다는 걸 빨치산은 잘 알고 있었다.

"어디에서 오는데?" 봉림에서 왔다고 할까, 아니면 황전에서 왔다고 할까. 어디라고 해야 하나. 숲속에서 다른 사내가 모습을 드러내더니 천천히 다가오며 남준과 명희를 살폈다.

"명희?" 사내가 명희를 알아보았는지 확인하듯 물었다. "아저씨..."

명희도 사내를 금방 알아보고는 꾸벅 인사를 했다. "기쁘히 있어보자, 이놈은 봉림 사는 놈 아냐? 당골래집?"

사내가 남준도 아는 체를 해 남준도 사내를 쳐다봤다. 얼굴이 익은 사내였다. 황전에 사는 박씨 성을 가진 사내였다. 명희와는 먼 친척관계다.

사내는 명희에게 눈을 돌렸다.

고창군, '로컬 100'에 3개 문화자원 선정

청보리밭축제·선운사·고인돌유적



고창 청보리밭 축제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2기 로컬 100'에 무려 3개(청보리밭축제, 선운사, 고인돌유적)의 문화자원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로컬100'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의 우수한 문화자원 100곳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와 매력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제2기 로컬100은 1차 서면 심사, 2차 대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이 이뤄졌다.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을 발굴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번 선정에 따라 고창군은 앞으로 2년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국적인 마케팅 지원을 받는다.

고창군은 △고창 청보리밭 축제 △고창 선운사 △고창 고인돌 유적 총 3개소가 이름을 올

렸다. 전국적으로는 단 5개 지역(춘천·진도·서귀포·경주·고창)만이 한 지역 내 3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고창군은 이렇게 농업·자연·역사·종교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화자원을 고루 인정받으며, 지역 문화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 VR콘텐츠 강화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종현)은 누리집 VR콘텐츠를 전면 정비해 온라인 사전 관람 서비스를 강화했다. 방문객이 공연장을 찾지 전에 기관 주요 공간과 전시 동선을 살펴보고, 관람을 한결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 개편으로 기관 전경과 주요 공간을 VR로 구현해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립민속국악원을 둘러볼 수 있다.

특히 관람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주요 지점 80여 곳(화스팟)을 지정해 공간 이동이 수월하도록 하고, 방문 전 동선과 관람 포인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견인차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야